

“기업이 행복하게! 우리의 내일을 행복하게!”

내년도 경영환경에 대한 기업인식 조사

2018. 12

 **전라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**

목 차

I. 조사개요	3
II. 지역기업의 내년도 경영환경 인식 조사	4
1. 2019년 경제 흐름 전망	4
2. 예상되는 내년도 대내외리스크	5
가. 대내리스크	5
나. 대외리스크	5
3. 내년도 사업계획 및 방향	6
4. 내년도 신규채용 계획	7
5. 내년도 전복 발전을 위한 해결 과제	7
III. 결론 및 시사점	8

I. 조 사 개 요

1. 조사목적

- 내년도 경영환경에 대한 기업의 인식을 조사·분석하여 정부의 경제정책 및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

2. 조사기간

- 기초자료 조사 : 2018. 11. 30 ~ 12. 12
- 자료정리 및 분석 : 2018. 12. 12 ~ 12. 20
- 보고서 작성 : 2018. 12. 20 ~ 12. 26

3. 조사대상

- 전북지역 소재 기업 127개사

4. 조사방법

- FAX와 전화조사 병행

5. 조사항목

- 2019년 경제흐름 전망
- 예상 대내외리스크
- 사업계획 및 방향
- 신규채용 계획
- 전라북도 현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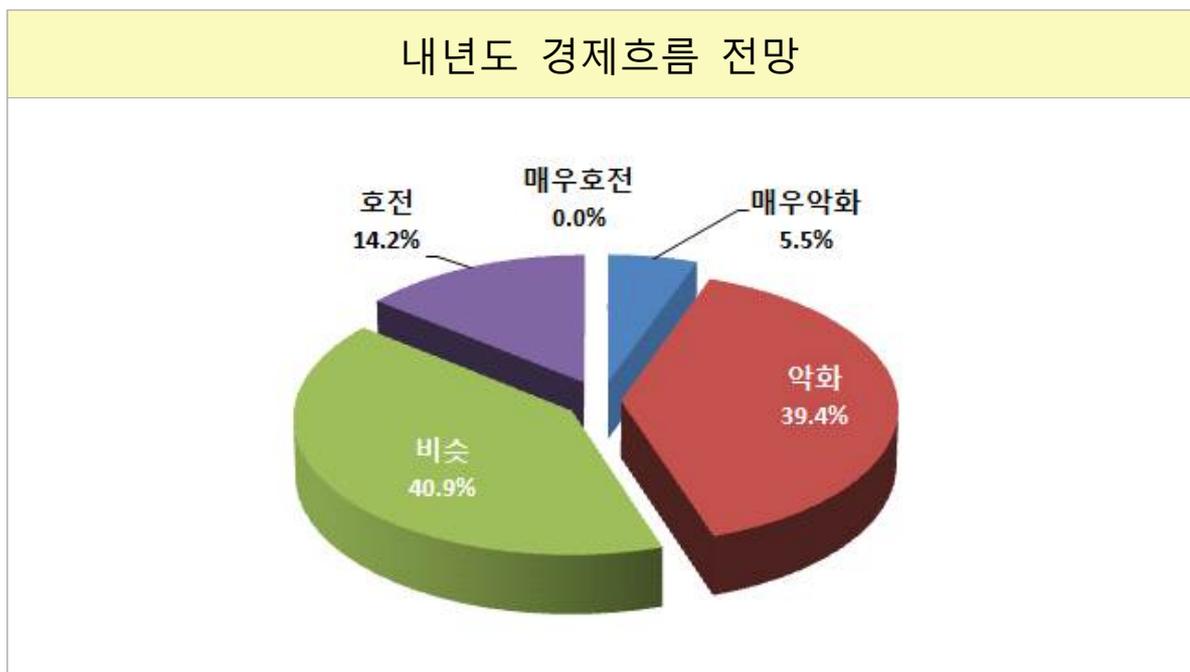
6. 기 타

- 무응답은 통계처리에서 제외
-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으로 퍼센트(%) 총계가 다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

Ⅱ. 지역기업의 내년도 경영환경 인식 조사

1. 2019년 경제 흐름 전망

- 올 한해 자동차, 조선 등 지역 주력산업 침체와 최저임금 인상, 주 52시간 근로 시간 단축 등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로 어려움이 컸던 도내 기업들은 내년에도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금리인상,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경기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어 경기 상황이 녹록치 않을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음
- 전라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가 127개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「내년도 경영환경에 대한 기업인식 조사」를 실시한 결과 2019년 우리나라의 경제 흐름에 대해 응답 업체의 39.4%가 ‘올해보다 나빠질 것’이라 응답했으며, ‘매우 악화’가 예상된다고 응답한 업체는 5.5%, ‘올해와 비슷할 것’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40.9%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내년도 경제상황에 대해 다소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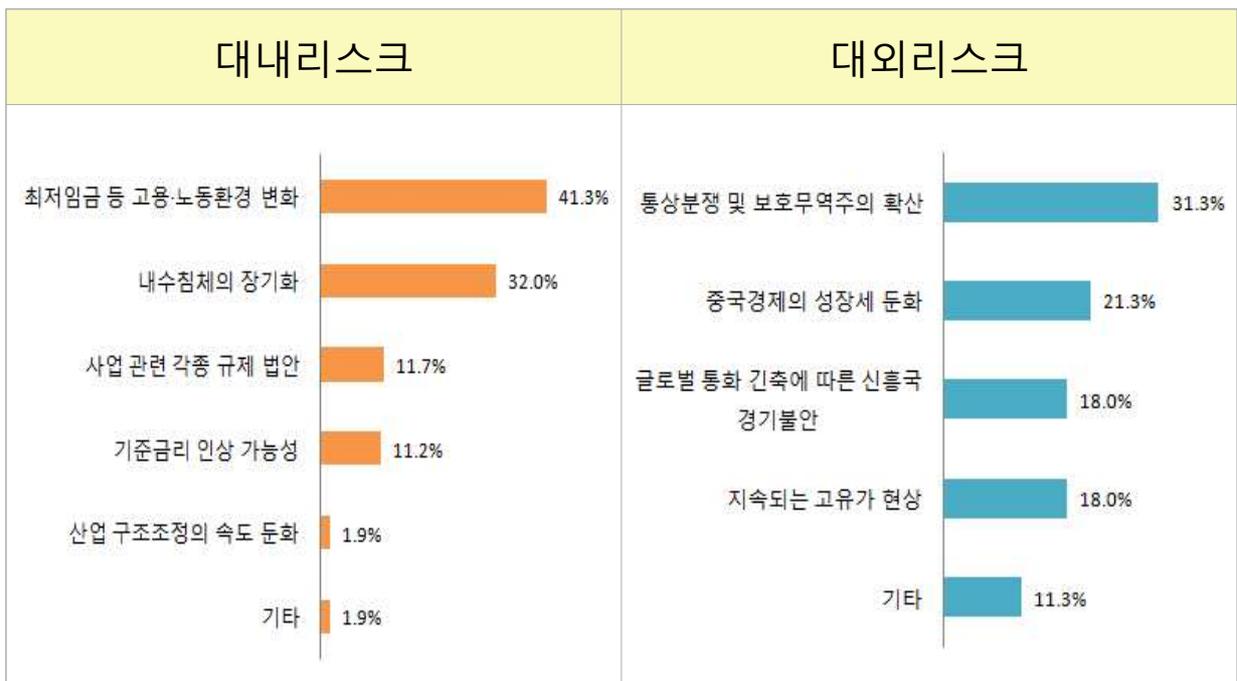
2. 예상되는 내년도 대내외리스크

가. 대내리스크

- 내년도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**대내리스크**로 우리지역 기업들은 ‘**최저임금 등 고용·노동환경 변화**’라는 응답이 **41.3%**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, ‘**내수 침체의 장기화**’라는 응답도 32.0%로 높은 응답률을 보임
- 이외에 ‘**사업관련 규제법안(11.7%)**’, ‘**기준금리 인상 가능성(11.2%)**’, ‘**산업 구조조정 속도 둔화(1.9%)**’ 등의 응답이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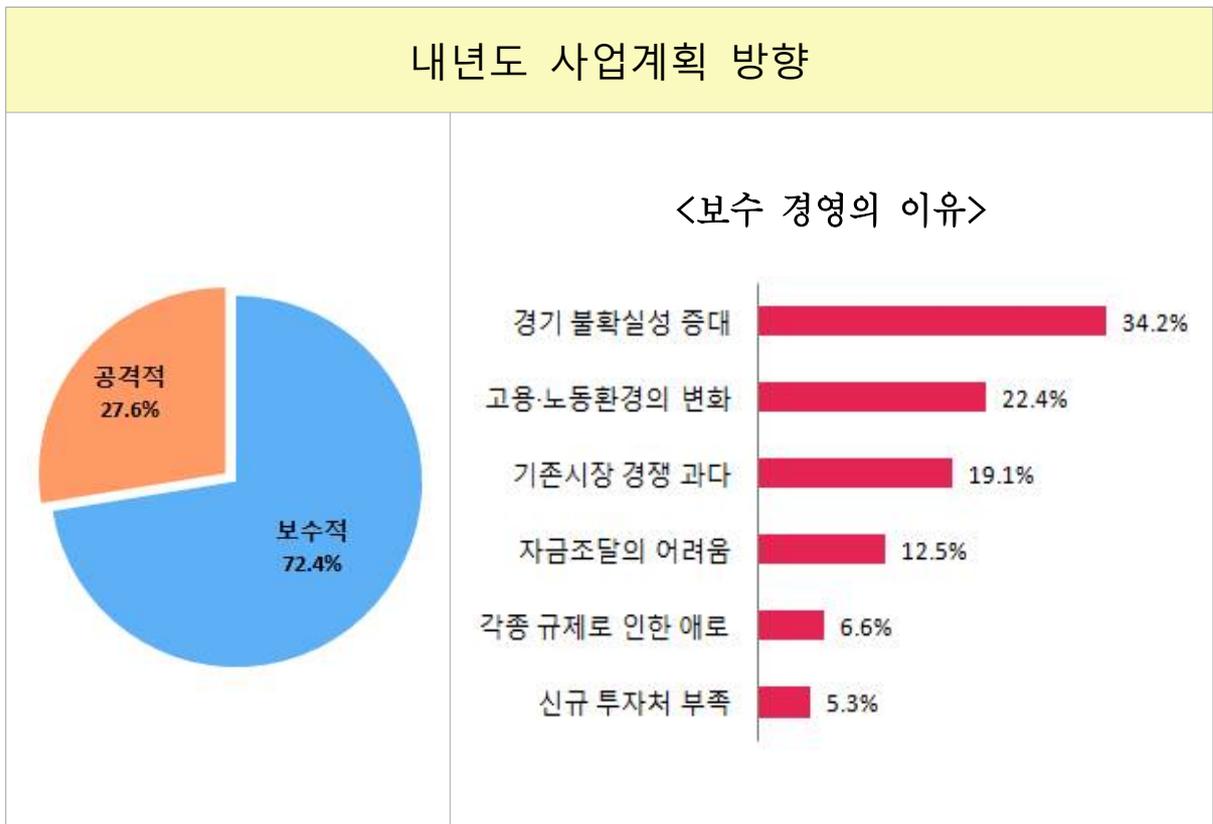
나. 대외리스크

- 내년도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**대외리스크**로 전북지역 기업들은 ‘**통상분쟁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**’이라는 응답이 **31.3%**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으며, ‘**중국경제의 성장세 둔화**’도 21.3%로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임
- 이외에 ‘**고유가 현상 지속(18.0%)**’, ‘**글로벌 통화 긴축에 따른 신흥국들의 경기불안(18.0%)**’ 등의 응답이 조사됨



3. 내년도 사업계획 및 방향

- 내년도 우리지역 기업의 사업 투자계획 및 방향에 대해서는 ‘보수적인 경영을 하겠다’는 응답이 72.4%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, 반면 ‘공격적인 경영을 펼치겠다’는 응답은 27.6%에 그침
- 보수적인 경영을 하겠다 응답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‘경기의 불확실성 증대(34.2%)’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, 뒤를 이어 ‘고용·노동환경의 변화(22.4%)’, ‘기존 시장의 경쟁 과다(19.1%)’, ‘자금조달의 어려움(12.5%)’, ‘각종 규제에 의한 애로(6.6%)’, ‘신규 투자처 부족(5.3%)’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나타냄



4. 내년도 신규채용 계획

- 2018년과 비교하여 내년도 신규채용 계획 인원에 대해서는 ‘올해와 비슷할 것’이라는 응답이 43.3%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, ‘올해보다 채용인원을 줄일 것’이라 응답한 기업이 23.4%로 높은 응답률을 보임
- 뒤를 이어 ‘채용인원을 늘릴 것’이라 응답한 기업은 16.7%에 불과했으며, 아직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는 기업이 16.6%로 조사됨



5. 내년도 전북 발전을 위한 해결 과제

-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할 지역의 현안으로는 ‘새만금 국제공항 건설’이 32.3%의 응답률을 보이며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, ‘조선업, 자동차업 등 주력산업의 활성화’가 27.8%로 높은 응답률을 보임
- 뒤를 이어 ‘새만금 신항만 규모 확대(11.9%)’, ‘전라선 KTX 증편 및 SRT 운행 (9.3%)’이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어 우리지역 기업들은 전북의 발전을 위해 SOC개발을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
내년도 전라북도 해결 과제



Ⅲ. 결론 및 시사점

- 조사를 통해 도내 기업들은 내년도 경제상황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, 그 요인으로는 다가오는 2019년도 올해와 비슷하게 급변하는 노동정책과 지속되고 있는 내수경기 침체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,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계속되는 국제 통상분쟁 및 보호무역주의의 확산, 중국경제의 불안정한 동향 등을 우려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음
- 앞선 이유들로 많은 우리 지역 기업들은 내년도 경영방향을 내실을 다지는 보수적인 경영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, 이로 인해 내년도 신규 채용 역시 올해와 비교해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

- 한편 이번 조사를 통해 우리 지역 기업들은 전라북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, 새만금 신항만 규모 확대, 전라선 KTX 증편 및 SRT 운행과 같은 SOC개발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, 조선업과 자동차업 같은 주력산업의 침체를 심각한 지역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음

- 이처럼 내년도 경기의 악화일로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내수 활성화 정책을 과감히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, 기업이 투자와 채용을 늘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친기업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



전주상공회의소

☎54969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/ 전화 063)280-1100 / 팩스 063)280-1129
 기획총무부 기획조사팀 팀장 임영길 담당 안설미(snow1261@daum.net)

문서번호 :	보존기간	3년	회 장
기안일자 : 2018. 12. 26(수)	공 개	공 개	
(경유)	사무처장		
수신 : 내부결재	실 장		
참조 :	팀 장		
	담 당		협 조

제 목 내년도 경영환경에 관한 기업인식 조사 결과보고

내년도 전북지역 제조기업의 경영관련 사항을 조사분석하여 기업의 경영계획 및 정부의 경제정책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‘내년도 경영환경에 관한 기업인식 조사’의 결과를 보고 합니다.

1. 조 사 명 : 내년도 경영환경에 관한 기업인식 조사
2. 조사기간 : 2018. 11. 30 ~ 12. 26(수)
3. 조사내용 : 내년도 경제흐름 전망, 대내외리스크, 사업계획 방향, 고용계획 등
4. 조사기업 : 도내 127개 기업체
5. 조사방법 : 우편 및 팩스 조사
6. 조 사 자 : 기획조사팀 임영길 팀장, 안설미 담당

붙 임 : 조사보고서 1부. 끝.